

종합

■ 호남권 국가산단 120개 입주업체 채용박람회 가보니

1만명 복직 '취업전쟁' 실감

“회사만 직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도 회사를 고를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1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호남권 인력 채용 박람회’ 행사장에서 만난 안주현(29) 씨는 “실비나 기계분야 생산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원하는 회사가 한 곳에 모여 있어 좋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좋은 인재 많아”

순천제일대 자동차학과를 나온 안 씨는 서울 반도체 부스 앞에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벌써 4개 회사(대신기술·하이테크엔지니어링·유한기술·재원산업)에서 면접을 마쳤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은 구직자들로 북적였다. 호남권 국가산단입자에 입주한 중소기업 120개 업체가

968명의 인재를 찾는데 9762명이 몰렸다.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이다. 서울반도체 부스 앞에는 면접을 기다리는 구직자들이 장사진을 쳤다. 17명 채용 예정인 서울반도체에는 이날 155명의 구직자가 다녀갔다.

제자들과 함께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조선대 기계공학과 안동규 교수는 “제자들에게 취업의 방향을 잡아 주었다”며 “현장에서 직접 면접 요청을 지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대기업은 노련한 실력을 갖춘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 이들에겐 중소기업이 권유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옛날 굴뚝산업을 벗어나 첨단·고급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텍 조순애 상무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왔다”며 “20명을 면접했는데 이 중 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준비 안 된 구직자에 당황하는 인사담당자의 모습도 보였다.

취업 준비생 이미지컨설팅 관심

리눅스아티스트 권경주 대표이사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직자가 (이 회사는) ‘뛰어난 곳’이냐며 ‘회복력’이냐고 물어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들은 당장 취업보다는 면접 방법과 이미지 컨설팅 등에 관심이 많았다. 광주여성 3학년 서진(18) 양은 “컨설팅관에 관심이 더 많다”며 “자기소개서 쓰는 법과 면접 때 행동, 이미지 컨설팅을 받아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D융합산업 육성 업무 협약

강운태 광주시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법일 대구시장과 ‘3D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명규 한나라당의원, 강운태 시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김법일 대구광역시시장, 김재근 민주당의원. (광주시 제공)

‘명량대첩축제’ 트위터 홍보

부대·숙박시설 등 정보 제공 젊은층 공략

명량대첩축제 홍보에 트위터가 사용된다.

전남도는 해남~진도 울돌목에서 열리는 올해 명량대첩축제 홍보에 트위터를 활용, 국제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신자 그룹에 140자 미만의 짧은 문자를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지원되며 쌍방향의 신청 수락 과정이 없어 손쉬운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명량대첩축제에 대해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트위터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축제 일정,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명량대첩축제 트위터 계정(myeongryang)을 개설하고 축제 홈페이지에 연동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구독자를 보유한 트위터 사용자도 초청해 명량대첩축제의 국제적 홍보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자체도 ‘유연근무제’

재택·원격 근무 가능

행정안전부는 13일 일부 부처에서 시범 시행한 유연근무제도를 이달 중 전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등의 통칭이다.

행안부는 5월부터 2개월간 23개 기관 1천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유연근무제 시범 운영 부처의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직무 및 조직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답변이 76%,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가 66%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 제도 전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필뉴스

동신대에 첫 ‘대학기술지주社’ 만든다

9월말 설립 목표... 특허 기술 상용화 기대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동신대에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동신대가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이날 말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술지주회사 설

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상용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대학 기술들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투자를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

는 수익금 중 배당금을 대학발전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동신대는 지난 달 3건의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 4억7000만원의 기술출자를 통해 지주회사와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신대 디지털콘텐츠융합동원구센

터에서 개발된 3D 입체영상 변환콘텐츠, 스포츠 게임 콘텐츠, 3D 입체 가공간 콘텐츠 기술은 높은 시장성을 평가받고 있어 조기에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내년에 순천대와 목포대 등 도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 자립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세나라黨’은 시간문제입니다

‘뇌물입찰’ 들통맨 계약해지

지자체 공사 규정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입찰 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통맨 계약이 해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 공사와 관련한 입찰 바리를 막고자 지자체의 계약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계약 입찰 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드러난 업체의 낙찰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자체는 뇌물을 건넨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검은돈을 고리로 수주에 성공한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일 뿐 강제력은 없어 부패 근절에 무기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업체들이 ‘무슨 수를 쓰든 계약을 따내면 된다’는 식으로 뇌물을 동원해 공사를 낙찰받고는 이후 문제가 불거져 일직원이 처벌돼도 공사를 계속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연필뉴스

무주택 서민 보증금 상환액 대폭 상향

26일부터 시행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과 상가건물에 가게를 낸 영세상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환액이 대폭 상향된다.

법무부는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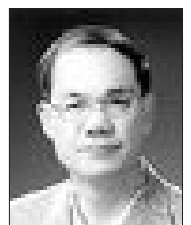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환액은 서울이 6000만원→7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 5000만원→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는 4000만원→5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과 지역은 지금처럼 4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연필뉴스

정호열 공정위원장 來光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장이 15~16일 중소기업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정 위원장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뒤 16일 광주시의 초청 강연회에 이어 하남산단 입주업체인 동양정공을 둘러보고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227-9600 FAX 227-9500

분할합병공고 (주)충진(“강”)과 (주)성우전력(“달”)은...

자본감소 및 주권재출공고 본 회사는 2010년 7월 12일 주주총회결의로...

분할합병공고 (재권지 이외 및 주권재출공고) 중앙전력 주식회사(이하 “강”)와 주식회사 선형에너지(이하 “달”)는...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평지법 사건번호 : 2010-단 438

광천동신축상가임대 ■ 건물 총 면적 : 1388㎡(420평) ■ 총별 건물 면적 : 413㎡(125평) 4층 : 148㎡(45평)

사원모집 당사는 건재재 생산 및 판매 전문 업체로서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최고 상권 건물 매매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택 건물